

대인시장 문화센터 '별별상상정원' 오세요

예술로 통하는 만남의 장 시장 역사·작가 작업 공간 조성 시민체험 프로그램 진행



대인예술시장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할 '별별상상정원'이 최근 문을 열었다.

대인예술시장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할 공간이 탄생했다. 지난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 '별별상상정원'이다.

새로 조성된 별별상상정원은 대인시장을 찾는 이들과 시장 상인, 작가들이 예술로 소통하는 만남의 장이자 문화센터로, 인포메이션 센터 역할을 하고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지난 2008년 광주비엔날레 북덕량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대인예술시장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주말 야시장이 열리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평일의 경우 '예술시장'의 분위기를 잡하기 어려웠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19로 야시장이 아예 열리지 않으면서 그동안 모색해왔던 '대인공간'을 오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별별상상정원 1층에는 대인예술시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아카이브 자료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또 차를 마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양한 소모임이 열리고 있다.

현재 매주 토요일에는 예술체험 프로그램 '만들랑가'가 진행 중이다. 시민과 시장 상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1일에는 공기정화식물로 인기가 많은 스칸디아모스(공기 중의 습기와 먼지를 먹고사는 천연 이끼) 공예 체험이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우드납비반침, 천연비누, 양말목 안마봉, 모시 향낭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인시장 블로그 등을 통해 매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있으며 사전 접수와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2층은 작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꾸몄다. 예술시장 운영초기부터 다양한 공간에서 레지던시 프

그램을 운영해왔고, 지난 2019년부터는 '묘수'라는 이름으로 청년 시각예술작가들과 문화예술단체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3기를 맞는 올해는 심사를 거쳐 지난 7월부터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10명의 작가가 입주해 작업하고 있다. 최다수·최나래·이정은·박다은·김민재·고유진·강미미·손연우·유선진·유지원 작가 등이다. 이들은 개인 또는 2-3명이 공간을 나눠쓰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밖에 시민들의 특목 튀는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는 시민 참여프로그램 '상상이 현실이 되는 별별상상정원'은 오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대인예술시장을 방문하면 놓치지 않아야 할 곳이 또 있다. 예술시장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한평 갤러리'다. 올해는 매회 다른 큐레이터가 참여해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는 작가를 초청, 기획전을 펼치고 있다. 8월에는 김가혜 큐레이터가 양승연·이은주 작가를 초대해 기획한 'pado:맞달은 모양'전이 열리는 중이다. 'TURN ONE'S

EYES'를 주제로 6월 열린 첫번째 전시에는 조선대 조형미디어 김도형·김명진·이의준·유상준·노윤아·오민집·김희은 작가가 같은 과 윤중훈 큐레이터의 기획으로 참여했다. 박명지 큐레이터가 기획한 두번째 전시는 'STARTING POINT' (김혜원·김혜자·유가은·정희진 작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아트컬렉션 샵 '수작'에서는 셀러들의 핸드메이드 제품과 대인예술시장 굿즈, 다양한 작품 에디션화를 만날 수 있다. 8월에는 미니전시 '여름것들'전을 통해 박솔혜·이선희·허영아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에디션화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중이다. 또 9-10월에 참여할 셀러도 모집하고 있다.

별별상상정원 방문객에게는 무료로 차를 제공한다. 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광주시 동구 재봉로 190번길 10-1. 문의 062-233-14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할까

국윤미술관 '뮤지엄의 어느날' 제작 3부작...직업 체험 자료로 활용

미술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큐레이터는 무슨 일을 할까. 미술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영상이 제작됐다.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이 미술관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뮤지엄의 어느 날(feat 직업체험)'을 제작했다. 시민들에게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시, 교육을 준비하는 모습과 실제로 전시가 열리는 현장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 영상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공모한 '2021년 국립박물관·미술관 온라인 콘텐츠 지원사업'에 선정돼 기획된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수요 확대에 따라 진행됐다.

큐레이터 등 각 분야별 직업의 정의와 역할 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 영상물은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 궁

금증을 풀어주고 사립미술관의 역할 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상은 3부작으로 제작됐다. 1부 '뜻밖엔 큐레이터'는 미술관의 주요업무에 도달하려는 큐레이터가 전시 기획 업무 및 작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김은희 큐레이터가 촬영에 참여했다. 2부 '뜻밖엔 레지던시 관리자'는 작가 선정·관리, 관람객과 작가와의 만남과 소통을 주선하는 오픈 스튜디오 업무를 진행하는 미술관 레지던시 담당자의 역할 등을 촬영했으며 이남옥씨가 함께했다.

임수연 에듀케이터가 함께 한 마지막 3부 '뜻밖엔 에듀케이터'에서는 미술관의 교육 사업과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는 에듀케이터가 실제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만날 수 있다.

3편의 영상은 오는 9월 국윤미술관 다음 카페, SNS,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며 광주시 교육청과 연계해 초·중등학교로 배포해 직업 체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국윤미술관이 제작한 3부작 '뮤지엄의 어느 날' 촬영 모습.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음 맞이할 것인가

보성 출신 언론인 위정철씨 '원산여록' 펴내



보성 출신 언론인 위정철 씨가 죽음과 삶의 의미 등을 다룬 '원산여록'을 펴냈다.

'죽음을 직시하는 코나투스'라는 부제에서 보듯 책은 죽음 연구에 관한 일체의 노력과 과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아울러 원산은 그의 호이며, 여록은 정식 기록에서 뺀다는 의미가 있다.

저자가 책을 펴내게 된 이유는 삶과 죽음의 본질을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사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순간순간 닥쳐오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다.

"두려움과 고통 없이 하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상적인 죽음일 것이다. 우리는 그런 죽음을 위해 중단 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는 평생의 화두에 대한 나름의 진단이다. 늙으면 흔히 쓰는 회고록은 아니다."

책에는 동서양 종교와 교리, 과학, 학설 등을 비교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유가, 불가, 기독교를 비롯해, 힌두교, 이슬람교 등을 망라한다. 또한 무신론자들의 주장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깊은 분야를 다루는 것에 대한 무모함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자신을 낮춘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은 결국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로 집약된다. 저

자는 "권력, 이성, 돈, 관계, 젊음, 건강 같은 것들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신비에 대한 겸손하고도 겸허한 태도가 아닐까"라면서 "어찌서 죽음이 신비나. 태어남이 신비라면 죽음 또한 신비함이 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자는 조선대 법학과 졸업 후 조선일보 광주주재기자로 언론계 생활을 시작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된 뒤 학교법인 정성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이후 무등일보 정치부장으로 언론계에 복귀해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광주매일신문 편집부국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남도일보 편집국장과 논설주간을 역임했다.

또한 지금까지 '실록 광주시대', '신부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DJ와 전라도', '존재 위백규와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연구'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성악콩쿠르' 1위 소프라노 한예원씨

차세대 젊은 성악기를 뽑는 2021 정음성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이하 광주성악콩쿠르) 1위의 영예는 소프라노 한예원(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사진) 씨가 차지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은 지난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주성악콩쿠르 본선을 진행하고 총 8명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본선은 무관객 비대면으로 유튜브 '광주성악콩쿠르' 채널을 통해 13명 진출자들이 기량을 겨뤘다.

1위를 차지한 한 씨는 정음성가곡 '매화를 읊노라', 한국가곡 '하' (조두남), 오페라 '햄릿' 중 '당신들의 놀이에, 친구들이여' 등 세 곡을 불러 1위의 영예를 안았다. 한 씨는 상금 1500만원과 함께 '정음성악축제' 공연 시 협연 기회를 갖는다.

이어 2위 박지훈(한국예술종합학교 졸), 3위 정인호(서울대학교 졸), 정음성가곡상 박지훈(한국예술종합학교 졸), 우리가곡상 한예원(서



수상했다.

이번 광주성악콩쿠르는 총 121명이 참가해 2차례 예선전을 거쳐 13명이 본선에 올랐다. 심사위원장 박수길(전 국립오페라단장), 신지화(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총 8명이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국내 콩쿠르 최초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